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막

21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104개 정원산업체 참가 다채로운 정원문화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대한민국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정원산업박람회조직위는 17일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박병모 위원장을 비롯한 박람회 조직위원들, 시민현수자, 정원 작가, 초록정원사 등 주요 내빈과 산업전 참여업체,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개막식을 가졌다.

'정원테라피(Goodbye Corona Good morning Flower)'를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의 회복과 희망을 정원과 꽃으로 표현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전주시 홍보대사인 '리스트포원'의 화려한 비보이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개막식은 참석 내빈 소개, 국민의례, 박병모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주제영상 상영, 우범기 전주시장의 환영사, 이기



전주시와 전주정원산업박람회조직위는 17일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박병모 위원장을 비롯한 박람회 조직위원들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개막식을 가졌다.

동 전주시의회의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의 축사,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과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의 축하영상, 정현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의 축하 서한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개막식에서는 윤호준 총

괄코디네이터 및 이소원, 최재원 초청작가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과 더불어 공모로 진행된 시민정원작가 우수작품 시상과 기념 촬영, 개막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민정원작가 공모에서는 '향기 담은 포켓 정원'을 기획하고 조성한 '화

양연화'(하도경·김민정)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꽃물들다'의 '동산바치'(김미숙·권경숙·박미경)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안아'의 최아연 작가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는 104개 업체가 참여하는 정원산업전을 비롯해, 초청작가정원과 시민작가정원, 협업정원 등 정원 조성·전시, 정원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5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원문화를 소개하고, 정원산업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제시해 정원문화를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제3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산업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이 되고,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전주에서 정원문화의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만의 로컬관광 육성 모색

'관광거점도시 전주X로컬 크리에이터 릴레이 세미나' 개최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로컬관광육성과 관광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분야 기업,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관광 창업의 새로운 모델과 방식을 논의하고, 로컬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관광거점도시 전주X로컬 크리에이터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개별관광을 통한 체험과 참여, 한 달 살이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됨에 따라 맞춤형 관광 인력을 양성하고, 사업체 육성·발굴, 지원 정책 등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로컬기업 대표와 관광 유관기관 관계자,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는 18일과 25일, 30일 등 3차례의 세미나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 정책 라운드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키워드는 '로컬 관광산업과 로컬크리에이터 양성방안'으로 각 회차별로는 △ '새로운 여행시대, 관광산업 속 일자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 지역과 사람, 로컬벤처와 로컬크리에이터의 성공사례에서 배우다' △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전주의 관광전문인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먼저 18일 1회 세미나에서는 10년째 관광 창업을 선도해 온 정용안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창업팀장과 로컬관광 전문가인 정란수 프로젝트 수 대표가 각각 발제하고, 신유정 전주시의원(문화경제위원회)과 황순호 서울관광재단 대리, 정유경 부산관광공사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펼쳐진다.

이어 오는 25일과 30일로 예정된 2회·3회 세미나에서는 충남 공주와 제주, 전남 목포 등 지역에서 성공한 로컬벤처 대표와 크리에이터, 지역관광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이성국·장병익 전주시의원 등 청년 의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정책개발과 관광창업에 대한 방향 정리를 위한 발표와 열린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 정책 라운드 토론의 경우 앞서 3차례 진행된 세미나를 종합하는 자리로, '전주 로컬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한 마무리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시는 올해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반향점이 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고, 관광인력 양성과 관광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새로운 관광모델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김옥기 기자

민선8기 우범기호 89개 공약사업 '순항'

시, 공약평가단과 점검 결과 1분기 목표대비 96% 이행·임기내 목표대비 16% 추진

민선8기 우범기호 '89개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민선8기 공약평가단(위원장 이규탁)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경제·문화·복지 4개 분야의 89개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종합경기장 개발 본격화 △탄소·수소·수소 3대 미래산업 육성 △왕의 공원 프로젝트 등 주요 공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광역시도 생활권 조성 △전주형 일자

리 창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실현 등 8대 핵심전략을 토대로 도시·경제·문화·복지 4개 분야의 89개 공약사업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민선8기 공약평가단은 올해 1분기 공약사업 이행률이 목표 대비 96%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임기 내 목표대비 16.0% 추진율을 달성했다.

먼저 도시 분야의 경우 총 24개 공약사업이 목표 대비 97%, 누적 추진 14%를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완주·전주 상생을

위해 6차례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시군간 도서관 이용 자유화와 상관 저수지 활용공간 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또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본격화를 위한 야구장 철거 △전주역 혁신관광소셜플랫폼 및 기관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발 설계 절차 추진 등 100만 통합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총 20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목표 대비 94%, 누적 추진 17%)인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탄소산단 착공을

시작으로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수소도시 추진전략 및 드론·UAM 산업 육성 연구용역 절차 추진 등 탄소·수소·드론 3대 주력산업의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문화 분야의 경우, 시는 민선8기 핵심공약인 '왕의 공원 프로젝트'를 △왕의 궁 △왕의 정원 △왕의 숲의 3대 핵심 전략과 38개 세부사업으로 구체화해 전주고도 및 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밑그림을 완성했으며 총 20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목표대비 95%, 누적추진 15%)이다.

끝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총 25개 공약사업이 추진(목표 대비 94%, 누적 추진 21%)되고 있으며, 시는 올 하반기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유관기관 간 사업 시행체계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주한옥마을 지도 제작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국제행사 개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체험프로그램 안내서를 제작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사업체 전주조사를 거쳐 '국·영문 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 지도'를 최근 제작했다. 이를 13일 아태마스터즈대회 개막식 홍보부스에서 처음 배포하였고 이로써 전주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 지도가 국제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전주의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작된 지도에는 한옥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공연, 다도음식, 생활공예 전통공예, 기타(글쓰기, 놀이 등)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생활공예체험 24개소, 다도음식체험 6개소, 전통공예체험 10개소, 전주한옥마을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한복 등 의상대여업체 27개소의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특히 영문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업체를 별도로 표기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전주만의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한 것은 한국관광데이터랩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주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월간 5000명을 넘어 만큼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난 3월 체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전주조사와 사업체 방문 1:1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배포된 영문 체험프로그램 지도는 이 전주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작된 첫 번째 성과물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문화·체육시설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 의원)가 17일 올해 개관을 앞둔 관내 체육시설 2곳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체육시설은 서신동에 위치한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와 전주혁신도시 라온 체육센터로 두 곳 모

두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을 포함한 지상2층, 지하층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체육시설 현장을 방문해 현황 브리핑을 들은 문화경제위 위원들은 시설 건립의 원만한 마무리와 앞으로 있을 조례 개정 및 위·수탁 협약 등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함께 방문한 전주영화종합촬영

영소는 2008년 개관한 영화 촬영 지원센터로 최근 25년까지 230억 원을 들여 새롭게 버추얼 스튜디오를 조성 중이다.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문화·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원활한 업무 추진으로 시설들이 하루 빨리 시민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